‘스포츠로 하나된 제주’ 도민체전 내일 개막

18일 오후 애향운동장 개막식… 유승민 회장 참석
20일까지 3일간 51개 종목·1만5000여명 우승 경쟁

‘스포츠로 하나되는 행복한 제주’를 구호로 내건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18일 개막,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16일 오전 제주시 삼성혈에서 김완근 제주시장과 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오선홍 제주자치도체육회 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59회 도민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를 채화하고 이틀간 제주 섬 일주 봉송에 나섰다.

채화된 성화는 제1주자인 김태종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넘겨져 첫날 36개 구간, 둘째 날 45개 구간을 봉송한 후 제주시청에 안치된 뒤 18일 개회식이 열리는 제주애향운동장 성화대에서 3일간 타오르게 된다.

이번 성화 봉송에는 회원종목단체에서 2025년을 기념해 총 2025명이 참여, 각 종목별 이벤트와 퍼포먼스가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요트, 패러글라이딩, 롤러스포츠, 승마 종목에서 종목별 특색을 반영한 이색 성화 봉송이 이뤄진다.

18일 개회식은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식전 문화예술공연에 이어 오후 7시 선수단 입장과 대회기 게양, 선수단 선서, 성화 점화, 드론 라이트쇼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공연은 제주 설화 ‘오백장군이야기’와 ‘설문대할망이야기’ 등 제주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예정이며 식후행사로 가수 안성훈, 안예은, 영기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개회식에는 지난달 취임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엘리트 체육 유소년 선수들을 초청, 배려석 배정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0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제주시 일원 67개 경기장에서 12세·15세·18세 이하부와 일반부로 나눠 51개 종목에서 1만5000여 명이 참가, 학교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친다.

치열한 우승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읍·면·동 대항 경기는 축구·줄다리기·줄넘기·배구 등과 재외도민 대상 민속경기 등 12개 종목이 진행된다.

대회기간에는 또 부대행사로 ‘SPORTS FOR ALL’ 이벤트를 필두로 학생 참여 프로그램 및 어린이 사생대회, 문화예술단체 참여 문화축제행사, 관광안내소 및 미아보호 안내소 등이 운영된다.

신진성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도민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만큼, 모든 참가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대회를 즐기고 내년에 제주에서 개최될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16일 제주시 삼성혈에서 채화된 도민체육대회 성화가 제1주자인 김태종 이도1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손에 들려 봉송 길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왼쪽부터 김현서(노형중 2), 김선일(제주서중 2), 김현솔(백록초 6), 김태원(표선중 1).

제주 요트 꿈나무 해경청장배 전국대회 입상

2위 김현솔, 3위 김선일

제주 요트 꿈나무들이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요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북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현솔(백록초 6)이 첫 전국대회 남자초등 고학년부에서 벌점 44점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김선일(제주서중 2)은 ILCA 4 남자중등부에서 벌점 14점으로 3위를 기록하며 올해 5월 개최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메달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트 경기는 여러 차례 레이스를 통해 최저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레이스에서 순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위영석기자

윤준상 한라배 수영 자유형 800m 금메달

서귀포시청 6개 메달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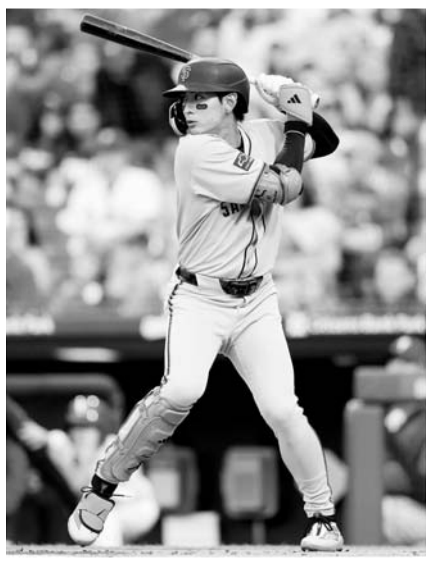
서귀포시청 윤준상이 제20회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자유형 800m에 금메달을 따냈다.

16일 서귀포시체육회에 따르면 윤준상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자유형 800m에서 8분11초18로 동료인 박재훈(8분18초71)을 제치며 1위로 골인했다.

윤준상과 박재훈은 12일 열린 자유형 1500m에서도 오세범(상무)에 이어 15분38초89와 15분43초40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조재우(서귀포시청)는 12일 열린 자유형 50m에서 23초27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자유형 100m에서 51초57로 동메달을 따냈다.

서귀포시체육회가 운영중인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수영부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위영석기자



멀티히트 활약을 펼친 이정후.

MLB 이정후 2루타 포함 멀티히트

1타점 1득점… 타율 0.333

‘바람의 손자’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무안타 침묵을 한 경기만에 끝내고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 활약을 펼쳤다.

이정후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를 치고 1타점 1득점을 곁들였다.

이정후의 타율은 0.323에서 0.333(67타수 23안타)으로 상승했다.

1회 첫 타석에서 내야 땅볼,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던 그는 2-2로 맞선 6회 2루타로 침묵을 깼다.

이정후는 필라델피아 왼손 선발 헤수스 루사르도의 초구 스위퍼를 잡아당겨 우익선상 2루타를 터트렸다.

팀이 3-6으로 다시 끌려간 8회에는 추격에 시동을 거는 적시타를 때렸다. 이정후는 8구째 몸 쪽 높은 시속 100마일(약 161㎞) 싱커를 공략, 1루와 2루 사이를 통과하는 적시타로 연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적시타로 4-6으로 따라붙고 무사 1, 3루 기회를 이어갔으나 후속 세 타자가 모두 범타로 물러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4-6으로 패해 시즌 5패(12승)째를 당했다. 연합뉴스

‘배구 여제’ 김연경 어드바이저로 새출발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배구 여제’ 김연경(37)이 어드바이저라는 직함으로 배구와 인연을 이어간다.

김연경은 프로배구 V리그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11일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후 인터뷰에서 은퇴 후 진로를 묻는 말에 “흥국생명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포함한 세부 조율은 남아 있는 상태다.

우선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및 드래프트 현장에 동행하는 일정은 확정됐다.

김연경은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사령탑으로 옮긴 마르첼로 아본단자 전 감독의 뒤를 이어 지휘봉을 잡은 요시하라 도모코(55) 감독에게 외국인 선수 선발과 관련한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7(목)

KBS1	KBS2	MBC	JIBS/SBS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10 사랑의 가족(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10 수목시트콤 빌런의 나라(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친절한 선주씨(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1:15 건강의 재구성 썰록(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해드림 컴퍼니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방과 후 초능력 14:40 열린채널 15:40 팔도밥상 스페셜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17:30 탐나는 제주	12:25 동네 한 바퀴(재) 13:3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쉿! 내친구는 빅파이브(재) 16:00 TV 유치원 16:30 누가 누가 잘하나 17:30 놓친예능 따라잡기	12:00 12 MBC 뉴스 12:25 바니와 오빠들(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공감토크 소통의 고수2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50 2025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경계탐구 파노라마 세계의 벽 14:00 뉴스브리핑 16:00 팔도강산 GoGo 17:00 SBS 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슈퍼트론 2
18:00 6시 내고향 19:00 KBS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일일연속극 대운을 잡아라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다큐 인사이트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25 2TV 생생정보 19:4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20:20 옥탑방의 문제아들 21:40 수목시트콤 빌런의 나라 22:55 2025 AFC U-17 아시안컵 준결승 대한민국 : 사우디아라비아	18:05 테마기행 길 19: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9:10 친절한 선주씨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시사기획 이슈 있다 22:00 구해줘! 홈즈 23:45 MBC 뉴스 25	18:05 안녕 자두야 6 18:2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뉴스 21:00 정글밥2 - 카리브밥 22: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9 그날 이야기 23:50 나이트라인

EBS1
9:20 사내수공업 가수-다비드 봉
12:10 건축탐구 - 집
13:00 EBS 평생학교
15:40 마샤와 곰
16:10 딩동댕 유치원
17:10 엄마 까투리
17:40 타타와 쿠마
18:10 EBS 뉴스
19:50 PD로그

KCTV
9:00 KCTV 9시 뉴스
9:30 KCTV 다큐스페셜
10:30 문화카페
11:30 인터뷰 제주공감
13:20 제주국제관악제
14:30 취미로 먹고 산다
15:20 인터뷰 제주공감
16:10 나혼자 여행지도
17:10 KCTV 다큐스페셜
18:00 KCTV스페셜
19:00 KCTV 종합뉴스

제주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떤가요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7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쁨. 48년 내 주장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형통하고 일이 순탄하다. 60년 순리에 따르면 만사형통.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를 가져라. 72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다. 귀가는 일찍 서둘러라. 84년 상대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비판하지 마라.

37년 상대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자. 49년 매매 사업 등에 희망이 보이지만 자녀결혼을 앞둔 부모는 마음이 타들어간다. 61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73년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의류에 관심을 갖는다. 85년 하던 일에 변동이 오니 이동수가 보인다.

38년 생활의 안정과 의식주을 갖추니 만사가 태평. 50년 손재주나 말로서 인정을 받고 문서상 이익이 따른다. 62년 자아의 욕구가 강하고 욕심이 앞설 수 있다. 신중함이 필요. 74년 유통분야 길. 미혼자는 직업 또는 자격준비가 필요. 86년 어떤 계획이든 세우면 철저히 실천함이 좋다.

39년 문서관리에 보다 신중하고 보증 설정은 금지. 51년 아랫사람 또는 동료의 도움 협조가 필요하다. 63년 수입도 있으나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교육비 증가가 생긴다. 75년 수습할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근심수가 오니 행동 조심해야. 87년 마음이 여유롭지만 학생은 분주하다. 미팅 또는 약속이 이뤄진다.

40년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커 의욕을 잃는다. 52년 문서상 하자가 생기거나 사기수 조심. 매매 불리. 64년 자녀진로에 관한 소식 또는 문서와 관계된 소식을 접하게 된다. 76년 경쟁자가 생기고 라이벌에 대항하는 형국으로 몸과 마음이 바쁘다. 88년 취업이나 직업, 학업관련 소식이 있다.

41년 명예 또는 문서에 변화가 오니 잘 대처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날. 53년 청과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는 몸이 분주하고 이익이 있고 일손도 필요하다. 65년 금전적으로 지출이 외모에 쓰이게 된다. 77년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운전은 자제하는게 좋다. 89년 돈을 빌리면 갚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42년 음식업이나 유통업 분야에서는 기쁨 두배. 54년 실언을 하기 쉬우니 냉정한 판단. 언행자제가 필요하다. 66년 외출이나 여행 등 활동이 많아지나 불필요한 언행을 주의. 78년 하는 일에 하자가 발생. 자녀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라. 90년 신경계통 또는 시력이 떨어지니 운동도 필요하다.

43년 생명공학, 연구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다. 55년 시기가 좋으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추진하라. 67년 활동이 과하면 유흥 또는 지출이 증가하고 구매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79년 내 아이디어가 인정을 받거나 계획하는 일이 발전이 있게 된다. 91년 친구의 문제로 변동이 오고 친목을 함께 할 일이 있다.

44년 관공서와 관계된 업은 계약이 생기기도 함. 56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주변의 시기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한다. 68년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형국이니 신중함이 필요. 80년 게으르면 남에게 추월 당하니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행동. 92년 자금여력을 항상 체크하고 규모있는 가계를 꾸려라.

45년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 추진이 길하다. 57년 직장인은 상사 또는 아랫사람에게 인정, 존경을 받은 날이니 미소도 필요. 69년 모든 일이 힘만으로는 안된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81년 외롭고 고독함이 새삼 몰려오니 주변사람과 대화가 필요하다. 93년 새로운 일이 있게 되고 수입이 증가한다.

46년 출발이 지체되고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58년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날이고 지출이 따르니 외모보다 내면에 지출을. 70년 소송 또는 관재구설이 있으니 공직자는 원칙을 고수하라. 82년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고 충동심이 강해진다. 94년 마찰이 올 수 있으니 처세술이 필요.

47년 상대에게 거절을 못하고 응해주나 배신도 함께 따라온다 . 59년 집안에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계시거나 병문안 갈 일이 생긴다. 71년 제조분야 건설분야,관공사업 계약이 따른다. 83년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다짐해야 한다. 95년 급히 서두를 일이 생긴다. 문서변화,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다.